

# 천만 마리 반딧불이 군무 어둠 뒤에 비로소 빛나네

화가 김연숙 그림에세이

‘거문오름 가는 길’ 원화  
8월 7일부터 약 두달 전시  
2009년부터 그려온 작품

이달 24일엔 작업실 개방

그가 거문오름 자락에 작업실을 둔 지 15년이 가까워진다. 당시만 해도 거문오름은 ‘동네 뒷산’이었다. 지금은 거문오름 탐방로가 잘 만들어졌지만 초반에 그는 곧잘 길을 잃었다. 적어도 수천년 전, 길게는 수십만년 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거문오름은 쉬 속살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틈날 때마다 거문오름으로 향했고 그 여정은 그림으로 이어졌다. 거문오름의 화가 김연숙씨. 그가

거문오름 입구에 들어선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그 사연을 나눈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가 세계자연유산 등재 12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그림에세이 ‘거문오름 가는 길’ 원화전이다.

‘거문오름 가는 길’은 2009년부터 근래까지 그려온 작품에 작가가 직접 쓴 글을 더해 묶었다. ‘낯설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숲. 길을 잃고 헤매며 어둠을 응시하고 난 뒤 비로소 눈앞의 거문오름을 제대로 보았던 어느 날의 이야기’라는 문구에 작가의 작업 의도가 담겨있다.

오름에 올랐다 작업실로 내려오는 과정이 시간 순서대로 짜인 그림에세이 원화 20여점을 따라가다 보면 숲 한가운데 이른다. 뾰족한 숲을 헤치며 나아가는 동안 고요 속에 휘파람새, 까마귀, 꿩, 노루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다행이다, 혼자가 아니라



김연숙의 '거문오름 가는 길'. 어둠이 내려앉고 반딧불이가 하늘의 별과 어울려 춤을 추는 거문오름의 풍경을 담았다.

서.” 마침내 다다른 분화구는 생명을 품은 거대한 꽃봉오리였다.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고 인적이 끊긴 숲은 별과 천만마리 반딧불이가 어울려 춤추는 축제장으로 변한다. 현재 거문오름은 세계자연유산이라는 화려한 왕관을 썼지만 그 이름을 지키는 건 우리의 몫이다. 거문오름을 빠져나오며 “아무래도 내가 슬

며시 비켜나야 할 시간인 것 같다”는 구절은 땅을 파내고 나무를 베어내는 기계음이 끊이지 않는 오늘날 제주 사회가 새겨야 할 대목으로 읽힌다. 전시는 8월 7일부터 9월 2일까지. 이달 24일 오전 11~오후 6시에는 작가의 작업실을 개방하는 오픈스튜디오가 마련된다. 문의 064)710-8997. 전신회기자 sunny@ihalla.com

## 저 생으로 건너간 이들에 부치는 노래

양대영 시인 첫 시집 발간  
그리움 시편 '애월, 그리고'

운다. 그가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건너간 이들을 호명하며 간 권의 시집을 묶었다. 양대영 시인(사진)의 첫 시집 '애월, 그리고'다. '말간 햇빛 속에서도 폭설이 내리



달 월(月)이 지평에 나오는 애월은 그에게 그리움의 또다른 이름이다. 그 달은 '사랑을 품은 보름달'보다는 '애절한 이별의 조각달'에 더 기

고/ 돌 속에서도/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는다./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다 죽는 세월이다.'로 시작되는 '별초 가는 길'처럼 시집에 흠여진 시편들엔 먼저 하늘로 올라간 이들이 눈에 들어온다. 스물네 해전 천국으로 떠난 아들, 정군철·권재호 시인, 마당같은 바닷 들락거리던 어머니, '고래사냥' 함께 불렀던 친구, 반려견 험뎨 등이다. 시인은 곁에 없는 그들이 그림과

또 그림다. 눈이 내려도, 비가 흠뿌려도 그것들이 다 가진 이들이 보내오는 소식인 양 싶다. 가만히 떠올리면 눈물 특 떨어질 것만 같은 존재를 잘 떠나보내기 위해 그는 시를 쓰는 게 아닐까. 50편에 바스락거리는 그리움이 있다. 영주일보 대표이사인 양 시인은 애월문화회, 제주문인협회 회원으로 있다. 도서출판 시와실천. 1만 2000원. 전신회기자

### 문화가 쏘다

#### 제주현대미술관장 공모

제주도가 공식인 제주도립미술관 소속 제주현대미술관장을 일반인기제 공무원(5급 상당)으로 공모한다.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뽑는 제주현대미술관장은 정학예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고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13~16일이다. 문의 064)710-6223.

#### 장애인영화제 단편 공모

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회장 오성진)은 제20회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단편 경쟁 출품작을 공모하고 있다. 응모작은 장애를 소재로 다뤘거나 장애인이 참여해 만든 영화면 된다. 2017년 1월 이후 제작된 작품으로 이 영화제 출품 이력이 없어야 한다. 홈페이지(www.jejudpi.or.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이메일(jejudpi@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9월 13일까지. 문의 064)757-9897.

#### 중국 귀주성 문화기행

(사)제주문화포럼(원장 홍진숙)이 중국 문화기행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기행은 심규호 제주국제대학교 석좌교수의 인솔로 10월 11~15일 귀주성 일대에서 진행된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불광암, 세계 제일의 단사포폭포인 적수대폭포, 2100년의 역사를 가진 귀주 3대 고진의 하나인 토성고진, 술문화박물관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참가비는 110만원으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64)722-6914.

#### 전도학생 풍물·민요 경연

제주도문화원연합회(회장 신상범)는 이달 10일 제주시민회관에서 2019전도학생민속예술경연대회를 연다. 청소년 여가활동의 질을 높이고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풍물놀이 경연과 민요 경연으로 나뉜다. 풍물놀이 경연에는 초등학교 6팀과 중학교 1팀이 참여한다. 2018년 민요대회 최우수상 수상자인 이은솔(예래초)어린이, 이준현의 색소폰메들리 무대는 찬조공연으로 이루어진다.

### 이번주(8월 5일~8월 11일) 무대 & 미술



## 그대가 발딛는 곳에 금빛 선을

지난해 제주국제관악제 개막 공연. 사진=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 제공

#### 24회 맞는 제주국제관악제 국제관악콩쿠르와 나란히

이 계절, 당신이 발딛는 곳에 금빛 선율이 흐른다. 24회 제주국제관악제와 14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가 9일 동안 제주 곳곳에서 이어진다.

이번 관악제는 문예회관, 제주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전문 공연장만이 아니라 성산, 고산, 도두, 대평 등 해변들이 물결하는 마을까지 향한다. 세계 정상급 금관5중주단인 '스페니시브라스' 30주년 음악회 등 모든 공연은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공연>  
▶린덴바움페스티벌 챔버 콘서트=8월 7일 오후 3시 4·3평화교육센터. 727-7790.  
▶제주국제관악제·제주국제관악콩쿠르=8월 8~16일. 개막 공연은 8월 8일 오후 7시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722-8704.

▶소소한 발레 공연=탄조울림 프아시아와 제주시발레단이 마련한 발레꿈나무들의 무대로 8월 8일 오후 3시 한라아트홀. 010-5036-2031.  
▶뮤지컬 '어린왕자의 꿈'=8월 10일 오후 5시 김정문화회관. 760-3792.

▶제주목관아 작은 음악회=8월 10일 오후 7시30분. 722-0203.  
▶위드제주 발리댄스 페스티벌=8월 11일 오후 7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010-6622-8743.  
<전시>  
▶홍량미의 '제주풍경 론도(Rondo)'=여성작가 발굴·지원 사업으로 8월 5~2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710-4246.

▶백광익의 '오름 위에 부는 바람'=김만덕기념관 초대 8월 6~10월 6일. 759-6090.  
▶조기섭 개인전=8월 6~31일 스튜디오126. 010-9036-3551.

▶김연숙의 '거문오름 가는 길'=8월 7~9월 2일 세계자연유산센터. 710-8997.  
▶허민자 도예전 '스톤 이미지'=1990년대 이후 작업한 화산암 이미지 작품을 모았다. 8월 7일까지 심천갤러리. 702-1003.

▶평화의 꿈=8월 7~9월 30일 제주국제평화센터. 735-6550.  
▶김양수 개인전=8월 8~14일 연갤러리. 010-8704-5799.  
▶김성란의 '꽃피는 서귀포'=8월 8일까지 이종섭창작스튜디오 전시실. 010-8361-3886.

▶양민희 개인전 '연월(戀月)'=8월 8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김애란 개인전 '제주 아일랜드'=8월 8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표선희 개인전 '바다, 소리'=8월 8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제주를 사랑한 화가들=김창열·변시지·장리석 작품전으로 8월 8일까지 현인갤러리. 747-1500.  
▶탐라서각연구회 '향기나는 서각풍경'=8월 10~15일 문예회관. 710-7633.  
▶강정자·김성영 모녀전=8월 10~15일 문예회관. 710-7633.  
▶제주대 미술학과 87학번 동거전=8월 10~15일 문예회관. 710-7633.

▶천병근: 제주, 40년만의 재회=8월 11일까지 소암기념관. 760-3511. 전신회기자

태양광 주택 | 태양광 발전소 | 전기공사업  
벤처 인증 기업 | 인공지능 태양광 제어기술 보유

제주 토종 글로벌  
**나눔에너지**

##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도 토종기업 나눔에너지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 큐셀(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주)나눔 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064-745-0420 FAX.070-8812-0420